

신약성경해석과 문법

(Nes Testament Interpretation and Grammar)

길 성 남

(Th. M. I, 신약신학 전공)

| 서 론 | 목 차 |
|-----------------|-------------|
| 본 론 | |
| 1. 문법적 해석과 그 방법 | 3. 문법과 구문연구 |
| 2. 단어연구 | 4. 문법과 문맥 |
| | 결 론 |
| | 참고도서 |

LIST OF ABBREVIATIONS

| | |
|------------------|---|
| NA ²⁶ | Nestle 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26 |
| UB ³ | United Bible Societies, The Greek New Testament 3 |
| ASB | American Standard Bible |
| GNB | Good News Bible (Today's English Version) |
| JB | Jerusalem Bible |
| KJV | King James Version |
| NEB | New English Bible |
| NIV | New International Version |
| RSV | Revised Standard Version |

서 론

신약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창안하신 신성 불가침의 거룩한 언어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일상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알아야 하며 그 언어의 단어, 문장, 구문, 전후의 문맥 등 문법에 정통해야 한다.¹⁾

문법이란 단어와 단어의 관계이며 그 형식이다. 단어는 독립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결합되어서 사용된다. 따라서 단어 간의 관계와 배열을 모르고서

1) 이승미, “제시내용의 목표와 성경해석” 고려신학보, 제16집 (1988), pp. 14-5

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바꾸어 말해서 문법을 잘 알아야만 한 언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신약 성경도 헬라어라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이상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루이 벌코프(L. Berkhof)도 말하기를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문법적인 설명을 요청한다”라고 하였다.²⁾ 이는 어떤 나라의 말을 바로 알고 구사하기 위해서, 또 그 언어로 쓰여진 글을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에 대한 문법 지식이 필요하듯이, 신약 성경도 사람의 언어로 쓰여진 이상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법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문법적인 설명만으로는 성경을 완전히 해석할 수 없다. 문법이 항상 문장이나 단어의 실제 의미를 전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가능한 의미를 전해줄 뿐이다. 따라서 성경해석은 문법과 함께 문맥에 대한 고려, 의미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밖에 역사적, 문학적 정황에 대한 연구 및 신학적 해석이 요청된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신약성경 해석과 문법의 상관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성경 해석에서 문법이 지닌 중요성과 그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1. 문법적 해석과 그 방법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문법이란 단어들의 배열과 문장 구조 및 그 운동상의 규칙이다. 다시 말해서 문법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문장들이 규칙에 의해 조성되었는지를 제시해주는 것이다.

문법적 해석은 단어에 대한 연구, 단어와 단어의 배열과 그 관계에 대한 구문 연구, 격, 태, 범, 서상, 그리고 분사, 부정사, 접속사, 전치사 등을 비롯한 모든 문법의 요소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단어의 뜻을 연구하고, 그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격, 범, 서상이 문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상의 발전 등을 연구함으로서 단어, 문장, 표현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문법적 해석의 목적이다.³⁾

또한 문법적 해석은 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단어들의 뜻이 문맥 안에서 이해될 때 올바로 이해되며 문장의 강조점을 밝혀주는 역할도 문맥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L.Berkhof, *성경해석학*, 윤종호 역(서울: 개혁주의 신학협회, 1987), p. 74.

3) 박형용, “문법적 역사적 해석방법의 우월성”, *성경과 신학*, 제2집(1984), p. 34.

해석자가 본문을 연구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방법은 단어에서 시작해서 문장으로, 문장에서 문단으로, 다시 말해서 부분에서 시작해서 전체로 나가는 것이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의미를 전달해주는 최소 단위를 단어로 보고, 단어를 독립된 실체로 봄으로서 상대적으로 문맥을 무시하는데 있다. 다른 한 방법은 문장을 사상을 전달해주는 최소 단위로 보고 전체 문맥을 고려하면서 문단, 문장에서 시작해서 단어로 내려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단어나 문장을 독립된 실체로서가 아니라 전체 문맥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다.

루이 벌코프는 순수하게 논리적인 관점이나 심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앞의 방법이 선택될 만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실질적인 이유에서 외국어에 대한 해석은 개체 낱말의 연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앞의 방법을 선택한다.⁴⁾ 이에 따라서 그는 자신의 책을 단어, 문장, 문맥의 순서로 짚필하였다.

월터 카이저(W.C. Kaiser)는 뒤의 방법을 선택한다. 그는 말하기를 “전 실한 주석 과정은 전체 콘텍스트에 비추어서 세부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다. 만일 주석자가 본문의 사상이 어디에서 시작되며 그 유형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모든 복잡한 세부 조항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였다.⁵⁾ 이에 따라서 그는 자신의 책을 문맥, 구문, 단어의 순서로 짚필해 나갔다.

반면에 로우(J.P. Louw)는 앞의 두 가지 방법을 비판한다. 단어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은 전체의 논증을 너무 작은 부분으로 조작을 낸 결과 설득력 있고 효력있는 방식으로 다시 관련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 문단이나 더 커다란 부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분석해야 할 대상이 너무 커서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문장의 개념과 비슷하면서도 그 보다 작은 개념인 “콜론”(colon)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고 하였다.⁶⁾ 콜론을 문장과 비슷한 단위로 생각한다면 로우의 방법은 전체

4) L.Berkhof, 앞의 책, p. 74.

5) W.C.Kaiser, *Toward An Exege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p. 69.

6) J.P.Louw, *Semantics of New Testament Greek*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2), p. 96, 그가 여기서 말하는 “콜론”(colon)이란 주어부와 술어부를 가지며 동시에 일정한 의미를 지닌, 강화의 기본적인 구조 단위이다. 문장과 비교하자면 단문 형태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로우는 이 콜론을 분석하여 성경 저가가 의도하는 바를 밝혀내려고 시도한다. 이것을 콜론 분석법이라고 한다. 참조, 황창기, “최근 성경해석학의 동향”, *이코심 박사 회감기념논문집* (부산: 고신대 출판부, 1984), pp. 375-85.

문맥을 고려하면서 문장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뒤의 방법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뒤의 입장을 따른다. 즉 단어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며 문장, 또는 문단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문법에 관한 모든 세부 조항들도 전체 문맥과의 상호관계 문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분으로 내려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주체를 다루는 순서에서는 전자를 따라서 단어, 구문, 문맥의 순서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성경해석에서 문법의 설명이 갖는 역할과 그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⁷⁾

2. 단어 연구

전통적으로 단어는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나이다(F.A. Nida)는 전통적인 견해를 바탕하는 문맥에서 말하기를 “언어 상징들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단어들에 속한 일종의 속성이거나 또는 고유한 소유(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견해 때문에 ‘이 단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 무엇이다’와 같은 표현이 생겨난 듯 하다”라고 하였다.⁸⁾

이런 견해는 한 단어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는 열쇠가 그 단어의 형태에 있다는 확신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단어의 참된 의미는 그 어원에서 유래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⁹⁾ 다시 말해서 단어의 기원을 알면 그 단어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어를 고유한 의미를 가진 독립된 실체로 보고, 어원 연구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려는 전통적인 시도는 현대 언어학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¹⁰⁾

7) J.P.Louw도 자신의 책을 이러한 순서로 집필하고 있다. 단어, 문장, 그리고 문단, 또는 강화의 순서로 집필하면서 기존의 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대 의미론에 입각 해서 자신의 방법을 제시한다. 물론 그 방법이란 콜론 분석법이다.

8) J.P.Louw, 앞의 책, p. 23에서 제인용.

9) 앞의 책, p. 25.

10) 성경학자들이 현대 언어학을 성경해석에 실제로 응용한 것은 최근 약 4반세기의 일이다. 그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1961년 영국의 James Barr가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을 출판한 일이다. 그는 이 책에서 R.Kittel의 신약신학사전(TDNT)의 성경 언어 연구 방법인 동시대적 방법(diachronic approach)을 날카롭게 공격하는 반면, 동시대적 연구 방법(synchronic approach)이 단어의 의미를 규명하는 바른 길이라고 제시함으로서 성경 언어 연구에 새로운 의미를 이룩하였다. 이로

첫째, 일반적으로 언어학에서는 한 단어가 고유한 의미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나이다는 말하기를 “의미는 단어의 소유물이 아니라 단어라는 언어 상징이 신호(sing)로 기능하는 일련의 관계이다”라고 하였다.¹¹⁾ 로우(J.P.Louw)도 이 견해에 따른다. 그는 나이다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말하기를 “의미는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다양한 관계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¹²⁾

헤이즈(J.H.Hayes)와 할러데이(C.R.Holladay)도 말하기를 “주식자가 성경문분을 대할 때 일차적으로 단어 하나 하나와 만나게 되지만 사상과 개념은 전달된다”고 하였다.¹³⁾ 그 이유는 단어 하나 하나의 의미는 구, 절, 문장, 문단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¹⁴⁾ 이런 의미에서 한 단어가 드러내고 있는 의미는 단지 그 단어 자체가 문맥에 공헌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한 단어 자체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 단어가 특별한 문맥 안에서 사용되는 의미라는 것이다.¹⁵⁾ 한 단어는 다른 단어들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 때만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다른 단어들과 관련을 갖지 못한 채 따로 분리되어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맥에 sperma는 씨(마13:24)를 가리킬 수도 있고 혹은 자손을 가리킬 수도 있다(요8:33). 또 hemera는 어떤 문맥에서는 해뜰 때부터 해가 질때까지(계21:25), 어떤 문맥에서는 하루 24시간을(마6:34), 어떤 문맥에서는 심판의 시간을(히10:25), 어떤 문맥에서는 일반적인 시간을(요14:20),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법정을(고전4:3) 가리키기까지 한다.¹⁶⁾ doron은 일반적으로 선물을 의미하나 마5:23에서는 예물(제

인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언어의 본질과 단어의 의미, 그리고 종래부터 사용해 오던 어원학 등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E.A.Nida가 성경번역에 의미론을 도입하여 새롭게 같이하여 남아공화국의 신약학자들이 지금까지 고전 언어학의 그늘에 있던 헬라어 연구에 현대 언어학 이론을 도입하여 새로운 독자적 위치를 확립하였다. 이 글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J.P.Louw도 남아공화국 Pretoria대학교의 헬라어 학과장으로 남아공화국의 강화분석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침조 황창기, 앞의 논문, pp. 372-3.

11) J.P.Louw, 앞의 책, p. 23에서 제인용.

12) 앞의 책, p. 50.

13) J.H.Hayes, C.R.Holladay, *Biblical Exegesis*, (London; SCM Press, 1983), p. 54.

14) W.C.Kaiser, 앞의 책, p. 89.

15) J.P.Louw, 앞의 책, p. 51.

16) D.A.Black,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8), p. 124.

물)을 가리킨다. aletheia는 진리를 뜻하지만 요8:32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anthropoi는 사람들을 뜻하지만 뉘12:36에서는 하인들을 가리킨다. moraino는 마5:13에서 “소금”과 관련해서 “맛을 잃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롬1:22에서는 “사람”과 관련해서 “우둔해지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전치사 en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문맥에서는 “안에”, 다른 곳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위에” “사이에” “앞에” “함께”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처럼 한 단어가 다른 단어와의 관계, 또는 문맥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미를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것은 단어 자체가 의미를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어는 단지 의미를 전달해주는 상징(symblo), 또한 신호(token)에 불과한 것이다.¹⁷⁾ 다시 말해서 의미가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의도한 것이라면, 단어는 그 의미의 특별한 특징들을 표현하는 상징으로서 채택된 하나의 항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어는 독립된 개개의 상태로 연구되어서는 안된다. 단어가 일정한 문맥안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단어가 다양한 문맥에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지만 그 가능한 여러 의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가 있기 마련이다. 이것을 일반적인 의미(generan meaning)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의미란 한 단어가 여러 문맥에서 사용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공통의 의미를 가리킨다.¹⁸⁾ 흔히 우리가 “이 단어는 여러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실제로 그 단어가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단어가 나타내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 뿐이다.

예를 들어서 sperma는 씨, 혹은 자손의 의미로 쓰여지나 그 일반적인 의미는 ‘씨’이다. hemera의 일반적인 의미는 ‘날’이며, doron의 일반적인 의미는 ‘선물’이다. 전치가 en의 경우는 “안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의해서 제멋대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문맥에 의해서 그 의미가 형성되기 전에 단어는 이미 일정한 범위의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다.¹⁹⁾ 단어가 문맥에서 사용될 때 대체로 그 의미 영역의 한계내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현대 언어학에서 단어가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의미를 전달해주는 상징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무리가 없지 않다. 반 로이(V. Rooy)는 제임스 바아(James Barr)의 지나친 짐을 비판하면서 단어의 고

17) J.P.Louw, 알의 책, p. 20.

18) J.P.Louw, 알의 책, p. 34.

19) D.A.Carson, *Exegetical Fallaci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p. 73.

유의 뜻을 인정한다.²⁰⁾ 티셀톤(A.C.Thiselton)은 말하기를 “단어는 혼들림이 없는 의미의 핵을 참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것이 있기에 사전 편집이 가능하며 단어 연구가 합법적인 자리를 갖는다”고 하였다.²¹⁾ 따라서 한 단어가 고유한 의미를 전혀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여러가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앞의 여러가지 예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어의 의미는 단어 그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형성하고 있는 다른 단어들, 그리고 다른 문장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문에 대한 연구는 독립된 개체의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단어에 대한 연구 역시 한 단어가 문장 안에서 갖고 있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 기능 등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둘째로 다를 것은 단어에 대한 어원 연구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성경해석가들은 단어의 형태와 의미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단어가 나타난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단지 어원을 살펴봄으로서 단어의 “어원을 찾아 내려는 오류”(fallacy of etymologizing), 즉 어원학에 대한 지나친 강조라고 하였다.

그러나 언어학에서는 비록 단어의 의미가 대개 그 형태와 어떤 양식으로는 관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단어의 형태와 그 의미 사이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본다. 단어의 형태에서 시작해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 현대 의미론(modern semantics)의 기본적인 원리이다.²²⁾ 또한 특정한 단어가 제시하는 의미는 역사와 함께 부단히 변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원학적 접근을 통해서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를 결정할 수 없다.

헬라어 단어 ekklēsia는 어원학 연구방법에 대표적인 희생물이다. 어원연구에 따르면 이 단어는 ek와 kalein에서 파생되었고 70인역이나 신약성경에서 다같이 교회를 나타내는 말에 사용되었으므로 교회는 “부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모임이라고 한다. 놀랍게도 어원 연구는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한 루이 별줄마저도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²³⁾

20) 황창기, 앞의 논문, p. 417에서 재인용.

21) A.C.Thiselton, “Semantics an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in I.H.Marshall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77), p. 79. 그는 이 말에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에 매달린 나머지 문맥에 무관심한 주식의 오류이다”라고 하였다.

22) D.A.Black, 알의 책, p. 121; J.P.Louw, 알의 책, p. 29.

23) L.Berkhof, 알의 책, p. 75.

그러나 신약시대에 명사 *ekklesia*는 불러냄을 받은 그룹이 아니라 “무리”를 나타내는 *oxlos*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정식 회원만으로 구성된 백성의 집회를 의미한다.²⁴⁾ 그러므로 이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단지 독립된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가 나타내는 신약성경의 본문을 살펴 보아야만 한다.

흔히 주석가들은 *apostolos*의 의미를 *apo*와 *stello*의 형태로 설명한다. 그래서 이 단어를 동사 *apostello*와 관련시켜서 “보냄을 받은자”를 뜻한다고 주장한다.²⁵⁾ 물론 *apostolos*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의미론적으로는 그보다도 전령자(messenger)에 더 가깝다. 전령자는 그를 보낸 자를 대리하며 그가 받은 메시지만을 전한다. 신약성경에서 *apostolos*는 일반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 보다는 특별한 대리자, 또는 특별한 전령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²⁶⁾ 따라서 이 단어의 참 의미를 *apo*와 *stello*의 형태에서 찾아내려는 시도는 단어의 형태가 의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이 단어의 촛점을 놓치고 만 것이다.

고린도전서 4:1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군(hyperetas Xristou)”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트렌취(R.C.Trench)는 *hyperstes*가 “(배를)젓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eresso*에서 파생되었으므로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배를 젓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 로버트슨(A.T.Robertson)과 호프만(J.B.Hofmann)은 이 단어를 전치사 *hypo*와 *eretes*-호머(Homer)의 책에서 “배 젓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함—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았다. 특히 호프만은 전치사 *hypo*를 종속적인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서 이 단어의 의미를 “보조로 배젓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모리스(L.Morris)는 “고대 군함의 아래층에서 노젓는 노예를 묘사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으로, 결국은 윗 사람을 섬기는 낫는 지위의 사람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였다고 한다.”²⁷⁾

그러나 한 가지의 불분명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이 단어가 회랑 고전문학에서 결코 “배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신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약성경의 용법을 살펴볼 때 이 단어는 *diakonos*와 별 차이가 없이 사용되었다.²⁸⁾

24) G.D.Fee, *New Testament Exegesi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p. 83; D.A.Black, 앞의 책, p. 121;

25) B.Ramm, 성경해석학, 권혁봉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4, p. 160).

26) D.A.Carson, 앞의 책, p. 29; J.P.Louw, 앞의 책, p. 27.

27) G.D.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p. 159.

28) D.A.Calson, 앞의 책, p. 28; J.P.Louw, 앞의 책, p. 28.

로우(Louw)가 언급한대로 *ekklesia*, *apostolos*에서처럼 *hyperetes*의 의미를 *hypo*와 *eretes*에서 끌어내려는 것은 *butterfly*의 의미를 *butter*와 *fly*에서, 또는 *pineapple*의 의미를 *pine*과 *apple*에서 끌어내려는 것과 같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²⁹⁾

또한 신약 성경에 나타난 *hamartano*의 “참된” 의미는 호머의 서사시에서 사용된 가장 오래된 용법에 의해서 설명된다. 호머에서 이 단어는 “파념을 맞히지 못한다”는 의미로 쓰여졌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죄를 짓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hamartano*의 숨겨진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목표(표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이 설명이 그럴듯 하지만 신약성경에 사용된 이 단어의 “참된” 의미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다.

*hamartano*가 어원학적으로 “표적을 맞히지 못하다”는 의미로 설명될 때 무시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단어가 고대의 용법에서 “표적을 맞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다” “빼앗기다” “잃어버리다” “무시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가운데서 “표적을 맞히지 못하다”의 의미만을 이 단어의 “숨겨진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게다가 어원 연구를 한다면서 왜 호머시대의 헬라어까지만 돌아가는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특정한 “단어” 자체가 아니라 죄를 다루고 있는 “본문”을 살펴야 한다. “죄”的 의미는 죄를 다루고 있는 문장이나 문단을 연구할 때 드러나는 것이다.³⁰⁾

이상과 같은 사실은 어원학적 연구방법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즉 이 연구를 통해서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잭임스 바아(James Barr)는 이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³¹⁾

“단어의 어원연구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어의 역사에 대한 것이다. 즉 어원학이 책임있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역사적 전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단어의 어원연구가 나중시대의 ‘적절한’ 의미나 또는 그 시대의 실제적 의미, 둘 중의 하나로 인도하는 안내자 노릇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처럼 단어의 어원 연구가 단어의 의미를 밝혀내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 것은 단어의 의미가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29) J.P.Louw, 앞의 책, p. 27.

30) J.P.Louw, 앞의 책, p. 29-30.

31) J.Barr,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London; SCM Press, 1961), p. 109.

한 단어에 의해서 전달되는 의미가 역사와 함께 부단히 변화되어 왔기 때문이다.³²⁾

그러므로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원 연구가 아니라 그 단어가 사용된 문맥을 살펴 보아야 한다.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경 언어를 연구할 때 어원이나 단어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종래의 통시대적 방법(diachronic approach)에 반대해서 문맥을 중요시 하는 방법이 동시대적 연구 방법(synchronic approach)이다.³³⁾ 현재 신약 성경의 언어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특색이 바로 종래의 통시대적 방법에서 동시대적 방법으로 급전향한데 있다. 이것은 제임스 바아가 키텔(R.Kittel)의 신약 신학 사전의 성경 언어 연구 방법론인 통시대적 방법을 비판하고 동시대적 방법을 단어의 의미를 규명하는 바른 길로 제시한데서 시작되었다.³⁴⁾ 그러나 이 방법은 단어가 나타난 현재의 문맥에만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게 되므로 자연히 단어의 역사성을 무시한다. 단어는 현재 쓰여진 문맥에 따라서 결정되며 그 단어의 과거의 용법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쓰여진 중요한 신학적 용어들인 언약, 구원, 유월절, 안식일, 메시아 등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³⁵⁾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현재의 문맥만을 중요시 할 때 어떻게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규명해 낼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통시대적 방법은

32) 예를 들면 영어 단어 "nice"는 라틴어 "nescius"에서 유래되었다. 라틴어 "nescius"의 의미는 "ignorant"이다. 그렇다면 "ignorant"가 "nice"의 "기본적" 의미인가? 참조, J.Barr의 앞의 책, p. 107; A.C.Thiselton의 앞의 논문, p. 80; F.R.Palmer, 의미론, 현대언어학연구회 (서울: 한신문화사, 1984) p. 12; 헬라어 "idios"는 한때 "one's very own"을 나타내는 용어였으나 신약 성경 시대에는 그런 의미가 약화되었으며 "autou"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참조; A.A.Black, 앞의 책, p. 122.

33) 황창기, 앞의 논문, p. 372. "언어의 역사 연구는 F.D.Saussure가 기본적으로 구분한 통시대적 언어학과 동시대적 언어학에 따라야 하며 전자가 후자보다 더 중요시 되고 있다. 동시대적 방법은 헬라어 단어를 각 시대별로 쓰여진 용법을 연구하는 방법, 즉 어원부터 따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대적 방법은 문맥을 더 중요시하는 의미론적 방법이다."

34) J.Barr, 앞의 책, pp. 206-62; 황창기, 앞의 논문, p. 372; A.C.Thiselton은 앞의 논문에서 "Saussure로부터 Barr의 시대 사이에 동시대적 연구방법이 의미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진 근본적인 원리가 되었다. 또 동시대적 관점과 통시대적 관점 사이의 구별이 언어학에서 하나의 중심 원리가 되어왔다."고 하였다. p. 80.

35) 황창기 앞의 논문, p. 417.

유용하다. 즉 단어가 역사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의미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알아내는데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대로 현재의 문맥을 무시한채 지나치게 단어의 과거의 용법이나, 또는 어원 형태에서 의미를 찾아내려 할 때 잘못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단어의 의미는 역사와 함께 변화되기도 하며 현재의 문맥 속에서 과거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우선적으로 현재의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규명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성경 언어에 대한 연구는 동시대적 방법을 사용하되 통시대적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즉 동시대적인 방법이 통시대적 방법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⁶⁾

이제 앞에서 제시한 논증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단어는 고유한 의미의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된 상태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문맥 안에서 사용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 문맥에 따라서 문맥과 어울리는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단어는 다른 단어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문맥 안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둘째, 종래에 사용되어 오던 어원 연구는 문맥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단어의 어원과 역사에 관심을 가진 결과 일정한 문맥에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규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단어 연구는 문맥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시대적인 방법을 사용하되 통시대적 방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 문법과 구문연구

문장의 의미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분리된 단어들의 의미를 합한 산물이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이다. 나아다는 말하기를 "언어는 상징들의 의미와 상징들의 결합 그 이상의 것으로 이루어진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활동 중인 암호(a code in operation)"고 하였다.³⁷⁾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두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 'this woman is a judge'/this judge is a woman'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은 똑 같지만 똑 같은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또한 'I hit the dog'와 'the dog is being hit by me'는 각각 다른 단어들을 사용했고 문장의 외형 구조가 다르지만 같은 사건을 나타낸다.³⁸⁾

또한 헬라어 문장 'agathon matheten agapai ho theos'를 사전에 실린

36) A.C.Thiselton, 앞의 논문, p. 82.

37) J.P.Louw, Linguistics and Hermeneutics, *Newtestamentica*, Vol. 4, 1970. p. 8에서
재인용.

38) J.P.Louw, 앞의 책, p. 67-8.

의미(lexical meaning)에 따라서 어순 그대로 영어 문장으로 바꾸면 “Good disciple loves the God”이 된다. 그런데도 이 문장을 “God loves a good disciple.”로 번역하는 것은 헬라어와 영어가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헬라어 단어와 영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같지만 헬라어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들과 관련을 맺는 구조적 장치가 영어와는 다르다. 영어에서는 어순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순이 바뀌는 경우에 전혀 다른 의미가 되거나 ('good disciple loves god'와 같이), 또는 전혀 아무런 구조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Loves God disciple good a"와 같이). 그러나 헬라어와 같은 고도의 굴절언어(inflected language)에서는 어순은 부차적이다. 형태소의 구조(morphological structure)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³³⁾

예를 들어 앞 문장에서 목적어가 문장의 앞에 있고 주어가 제일 뒤에 왔다. 이러한 어순은 목적어인 *agathon matheten*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는 문장 전체 의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어순보다 형태소의 구조가 더 중요한 것이다. 즉, *agathon*과 *matheten*의 -n은 이 두 단어가 직접 목적어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agapai*의 꼬리 변화는 이 단어가 현재, 삼인칭, 단수 동사임을 보여준다. *theos*의 -s는 이 단어가 문장 마지막에 있더라고 주어임을 알여준다. 이렇게 헬라어 문장에서는 각 단어들이 형태소의 구조에 의해서 서로 관련을 맺으며 의미를 전달한다. 따라서 행태소의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헬라어와 영어 문장에서 모두 같지만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적 장치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 문장이 전달해 주는 의미는 단순히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독립된 단어들의 합이 아니라 단어 사이의 관계(혹은 단어들의 결합), 그리고 문법 구조에 달려있다. 따라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개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뿐 아니라 그것들의 문법적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문에 대한 문법 연구는 개개의 단어가 아니라 전체 구조로서의 문장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언어학에서 문장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표면 구조(surface structure)와 심층구조(deep structure)로 나뉘어진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20의 “oh eme lambanont lambanei ton pemsanta me”(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에서 ‘oh eme lambanon’은

‘(houtos) lambanei eme’라는 문장에 근거해 있다. 이 경우에 앞엣 것은 뒤엣 것의 표면 구조이며 뒤엣 것은 앞엣 것의 심층 구조이다.⁴⁰⁾

ho eme lambanont lambanei ton pemsanta me
|
(houtos) labanei eme

심층 구조는 의미가 표현되는 근본적인 구문 유형(syntactic pattern)이며 표면 구조는 본문 안에서 의미를 표현하는 특별한 형태(particular form)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표면구조는 저자가 마음에 간직한 어의적 내용(semantic content)을 표현하기 위해서 채택한 외형 구조인 셈이다.⁴¹⁾ 심층구조는 저자가 마음에 간직했던 어의적 내용이다. 저자는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들을 선택하고 문장을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문장의 외형 구조가 표면 구조인데 이것이야 말로 저자가 전달하고자 의도했던 의미를 밝혀내는 유일한 수단이자 통로인 것이다.⁴²⁾

그러므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표면구조는 주로 구성 요소들 사이의 구문 관계(syntactic relationship)에 의해서 나타난다. 표면 구조 안에서 단어들이 어떻게 결합되어서 구, 절,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가를 알면 저자가 전달하려는 의미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1:27의 “hoste hos an esthieit ton arton epinei to poterion tou kouriou *anaksios*”(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에서 “합당치 않게”(*anaksios*)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누구든지”(*hos an*)에 걸리는가, 아니면 “먹고 마시는”(*sethieit...pinei...*)에 걸리는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에 걸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⁴³⁾ 그래서 합창치 못한 사람은 정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40) J.P.Louw, 앞의 책, p. 73.

41) J.P.Louw, 앞의 책, p. 73.

42) 앞의 책, pp. 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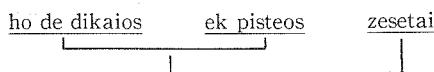
43) G.D.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p. 560, 여기서 그는 말하기를 “특히 개신교 전통에 속한 지나치게 엄격한 종파에게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한다. 만일 누군가가 죄를 지었거나 또는 성찬이 있기 전주간에 죄를 범하면 그는 성찬에 참석하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의 비극은 성찬 식탁을 무시무시하게 만

문법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합당치 않게”는 부사이므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를 수식한다. 이 문장에서는 주어인 사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동작과 관련된 것이다. 이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자신이 합당치 않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저해서는 안된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다. 영적으로 분별도 하지 않고 경의심도 없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것에만 치우칠 수 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경계한 것이다.⁴⁴⁾ 요컨대 본문의 해석은 “합당치 않게”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라는 문법적 이해에 달려 있다.⁴⁵⁾

로마서 1:17에는 “*ho de dikaios ek pisteos zesetai*”라는 유명한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의 구조는 단어들 간에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두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특별한 전치사구인 *ek pisteos*가 어떤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한 가지는 *ek pisteos*가 명사구인 ‘*ho de dikaios*’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장의 구조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 가지는 *ek pisteos*가 명사구인 ‘*ho de didaiois*’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장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이 경우에 번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살리라”가 된다. RSV, GNB 등이 이 번역을 채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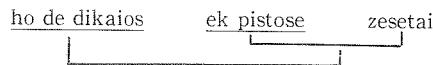
든다는 점에서 또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죄스럽게 만든다는 점에서 해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KJV의 번역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한다. “불행하게도 KJV에서 이 부사는 “unworthily”로 번역되었다. 이 특별한 영어 부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 보다도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더 관련된 것처럼 보이므로 그 결과 이 단어는 영어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위협이 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Fee는 문제의 부사를 “in anunworthily manner”로 번역한다. 앞의 책, p. 558. 참조.

44) G.D.Fee, 앞의 책, p. 560. “여기서 바울의 관심은 자기들의 것을 미리 먹음으로서 주의 만찬 식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20-22절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런 사람은 예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만찬 식탁에서는 ‘합당치 않게’ 행하는 것이다.”

45) T.N.Sterrett, 성경해석의 원리, 성서유니온 편집부 역(서울: 성서유니온, 1978), p. 58-60.

그러나 *ek pisteos*를 동사인 ‘*zesetai*’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문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된다.



이 때 번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된다.⁴⁶⁾ 우리 말 개역성경, KJV, JB, NIV 등이 이 번역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면 구조에 나타난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는가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만큼 문장에서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는 중요하다.

사도행전 11:17에서도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구조는 본문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본문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것을 비난한데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 행동을 변명하는 문맥 가운데 나온다. 여기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안이 오순절에 120명이 받은 것과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 본문은 성령으로의 세례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다.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120명이 오순절 이전에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이 그 때 비로소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전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17절 문장의 문법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는가에 달려 있다. 17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ei oun ten isen dorean edoken autois ho theos hos kai hemin pisteusasin epi ton kurion...”

우리 말 개역성경은 이 문장을 “그런즉 하나님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라고 번역해놓았다.

이 문장에서 밑줄 친 분사 “*pisteusasin*”(믿게 될 때)이 어느 단어와 관련되어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 분사는 부정과거형으로 남성, 복수, 3격이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3격 복수로 나오는 단어는 두개의 대명사로 “그들”(autois)과 “우리”(hemin)이다. 그렇다면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믿게 될 때”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게 될 때”인가?

많은 주석가들은 문장에서 *hos kai*는 “그들”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주동사인 “*edoken*”(주셨다)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분사인 *pisteusasin*은 문

46) J.P.Louw, 앞의 책, p. 75.

법적으로 볼 때 그 중 하나와만 관련되어야 한다.⁴⁷⁾

이 분사는 문장에서 단어의 배열을 볼 때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말 개역성경도 “우리”와 관련시켜서 번역해 놓았다. 이것은 KJV, NIV, GNB 등 영어성경에서도 같다. 다만 KJV와 NIV에서는 각각 “us, who believed on the Lord...”와 “us, who believed in Lord...”로 번역했으나 GNB에서는 “when we believed in the Lord...”로, 우리 말 개역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를 믿을 때에”로 번역해 놓았다. 우리 말 성경과 GNB의 번역은 NJV와 GNB에 비해서 120명이 성령을 받은 것이 주를 믿은 ‘바로 그 때’라는 어감을 강하게 풍긴다. 즉 그들이 오순절에야 믿음을 가졌고 바로 그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KJV와 NIV의 번역이나 GNB, 개역성경이 분사를 ‘우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번역한 점은 모두 같다.

헬라어의 사용례에 따르면 분사의 위치는 대단히 자유롭다. 분사는 그와 관련된 단어와 여러 단어에 의해서 분리될 수 있다. 또 분사가 같은 격을 가지는 명사를 전너 뛰어 그 앞의 명사와 관련된 경우도 신약성경에 여러번 나타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문제의 분사는 현재의 단어 배열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와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얼마든지 ‘그들’과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그러나 여기서 문법적 분석만으로는 이 16분사가 두 대명사 가운데 어느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의 문맥에 의해서, 그리고 믿음과 성령으로의 세계에 대한 신학적인 고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문장에서 단어들 사이의 문법 관계가 문장의 전체의 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준다. 또한 본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나 역사적 해석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문법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분석이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문법의 한 요소인 동사의 시상도 본문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17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me mou haptou)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같은 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

47) 고재수, 성령으로의 세례와 신자의 체험,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p. 75.

48) 고재수, 앞의 책, p. 75-6, 고재수 교수는 이 분사가 ‘그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은 문법적으로 가능하며 내용상으로도 필수적인 주석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이 오순절 이전에 이미 믿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이 본문의 의미는 이방인들은 무게 될 때 오순절에 오신 것과 같은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이다.

구리를 넣어보라”고 말씀하신다. 손가락을 내밀어 예수의 손을 ‘보라’(ide; 제2단순과거 2인칭 단수 명령형)고 하실 뿐 아니라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bale eis; 제2단순과거 2인칭 단수 명령형)고 까지 명령하셨다.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시던 예수님이 왜 도마에게는 옆구리에 손까지 넣어보라고 하셨는가? 왜 마리아는 주님을 만져서는 않되는가? 예수님은 그 이유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헬라어의 시상이 가진 미묘한 특성을 적용하면 쉽게 해결된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동사는 부정어 ‘me’를 가진 현재 시상의 금지명령형이다. 헬라어의 시상은 적설법 외의 다른 법에서는 시간의 의미보다 행동의 종류(kinds of action)를 나타낸다. 대체로 현재는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인 행위, 부정과거는 순간적, 단번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현재는 선적인 동작이고, 과거는 점적인 동작을 나타낸다고 말하기도 한다.⁴⁹⁾ 특히 금지형에서는 현재 명령형이 부정어 me와 함께 쓰여서 계속되는 동작을 금지하였는데 사용되며 부정형과거 가정법이 me와 함께 쓰여서 (절대적 금지와 함께) 미래 동작의 금지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⁵⁰⁾

이런 헬라어의 시상을 적용할 때 본문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한 금지를 나타내는 과거형 “me mou hapsei”가 아니라 현재형, “me mou haptou”를 사용하였다. 이 현재형은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낸다. 즉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내게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렇게 해서 이제 나를 보내다오. 너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⁵¹⁾

박윤선박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잡으려고 했으며, 그것은 “신앙이 정서적으로만 움직이는 중에 연출한 부족이다. 그것은 그리스에게 대하여 감각의 집축을 가지므로 종교적 만족을 얻으려는 그릇된 행동이다. 그것은 하

49) F.Blass, A.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Testameni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rans. by R.W.Funk,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p. 166.

50) M.Zerwick, *Biblical Greek*, trans. by J.Smith, (Rome; Pontificium Institutum Biblicum, repr. 1979), p. 79-80.

51) M.Zerwick, 앞의 책, p. 80; 박종철, 구속사적 성경해석,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p. 123.

나님과 연간 사이에 있어야 할 거리를 잊어버린 과오이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이다.⁵²⁾ 박윤선 박사의 이러한 오류는 헬라어 문법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마리아의 행동을 심리적 차원에서만 분석한 데서 온 것이다.

또한 요한일서 3:9의 문제 본문인 “하나님께서 난 자마도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를 해석하는데도 문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할 수 없다는 말은 3:6, 8, 10에도 나온다. 이 본문들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를 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죄인일 수도 없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즉시 두 가지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한 가지는 요한일서 곳곳에 신자들도 죄를 저울 수 있다는 말씀이 나타난다는 것이다(1:8, 10:2:2; 5:16). 또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는 권고 형태의 말씀이 많다는 것이다(2:1, 15, 29:3:12, 18:5:21). 이것은 요한이 독자들이 죄를 저울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요한이 독자들에게 고려한 사실이 우리 개인의 경험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유혹에 초연하거나 생활속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그것을 고백한다. 신학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 전혀 죄를 저울 수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⁵³⁾ 그렇다면 요한일서의 여러 본문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NIV는 “죄를 짓는다”(3:9, hamartian ou poiei; ou dunatai hamartanein; 6, oux hamartanei; 8, ho poion ten hamartian)는 동사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 동사들을 계속적인 의미로 번역해 놓았다(…keeps on sinning). 이 번역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난 자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현재시제가 계속적인, 혹은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낸다는 문법적 사실에 근거한 해석이다.

젤비크(M. Zerwick)도 3장9절의 문법을 설명하면서 ‘hamartanein’은 현재 사상으로서 ‘습관적인 죄인이 되다’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중생하기 전에 행하던 것과 같이 계속해서 죄악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한다.⁵⁴⁾ 웨스

52) 박윤선, 요한복음주석, 하권, (서울; 영음사, 1985), p. 582.

53) I.H.Marshall, The Epistles of John,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78), p. 178. 예를 들면 B.B.Warfield, L.Berkhof 등.

54) M.Zerwick, 앞의 책, P. 82.

트코트(Westcott), 로스(Ross), 스토프(Stott), 모리스(Moriss) 등과 같은 학자들이 이러한 해석을 시도한다.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비록 마샬(I.H.Marshall)과 같은 주석가는 이러한 문법적 해석이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는 하지만⁵⁵⁾ 이것은 문제의 본문을 해석하는데 문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시상 뿐 아니라 격이나 대명사, 접속사 등도 본문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가지 예로 고린도후서 5:14에 “그리스도의 사랑(agape tou Xristou)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소유적 형태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그리스도가 주격으로 사용되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또 로마서 3:22, 26에 나오는 속격구문, ‘pistis Xristou’는 목적 소유격인가, 아니면 주격 소유격인가? 즉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성부를 향해 가진 그리스도 자신의 신실함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속격구문에 대한 문법적 이해와 분석에 따라서 본문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접속사의 경우는 로마서 1:5의 “Xarin kai apostolen”를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접속사 ‘kai’를 단순한 등위접속사로 본다면 이 표현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번역할 수 밖에 없다. 우리 말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접속사는 종속접속 관계로 apostolen이 Xarin을 수식하는 문법 구조를 형성한다. 바우어(W. Bauer)의 헬라어 사전에 의하면 여기서 kai는 ‘설명하는’ kai (explicative kai)로서 ‘즉’ ‘말하자면’(namely)의 뜻을 갖는다.⁵⁶⁾ 따라서 이 표현은 “은혜, 즉 ‘사도의 직분’”이란 뜻이므로 ‘사도가 된 특권’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⁵⁷⁾ 그러나 접속사 kai에 대한 문법적 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단순히 등위 접속사로 생각하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오역을 하고 말것이다.

55) I.H.Marshall, 앞의 책, p. 180.

56) W.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rans. by W.F.Arndt, and F.W.Gingrich,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9), p. 393, kai 3항.

F.Blass ad A.Debrunner, 앞의 책, p. 228, §442, 16항, 여기서 kai는 종속속격(dependent genitive)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두개의 대등관계를 나타내되 그 둘중의 하나가 다른 것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따라서 롬 11:5의 표현은 “사도 직분의 은혜”라는 표현과 같은 것이다.

57) 황창기, 앞의 논문, p. 419.

더 이상 예를 들지 않더라도 위에 열거한 사실들만을 보아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루이 벨로온은 말하기를 “결국 신학이란 성경의 문법적인 의미 위에만 그 기초를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명백한 의미에서 나오지 아니한 신학적 지식은 그만큼 잘못된 것이다”고 하였다.⁵⁸⁾ 이것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무엇보다도 문법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문법적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그때 비로소 본문 해석의 바른 토대가 형성되는 법이다.

4. 문법과 문맥

그러나 문법의 원리를 아무리 잘 파악하고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문장의 의미는 물론 문장의 구조나 성격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경우에 문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맥은 좁은 의미에서 본문 내의 절과 문장과의 상호 관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본문의 전후관계나 성경의 다른 책과의 관계를 가리킨다. 문맥인구라고 할 때 이 두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저자의 사상의 흐름과 본문의 주제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흔히 문맥을 가깝고 직접적인 문맥, 멀고 간접적인 문맥으로 나누기도 한다. 전자는 구문론적 관계의 형태를, 후자는 직접적인 문맥을 포함하여 논리적인 관계의 형태를 이룬다. 대체적으로 직접적인 문맥이 간접적인 문맥보다 우선적이다.⁵⁹⁾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간접적인 문맥이다. 즉 직접적인 문맥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간접적인 문맥을 살펴봄으로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houtos oun proseuxesthe” (마6:9)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인가? 아니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한다”인가? 단순히 문법만을 적용해서는 결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사인 “proseuxesthe”가 그 자체로는 2인칭 복수 명령법일 수도 있고 적설법 동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문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귀절이 나오는 마태복음 6장의 전후 문맥을 살펴 보아야 알 수 있다.

앞서 다루었던 문장 “ho didaios ek pisteos zescta”(롬1:17)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문법 지식을 동원해도 이 문장에서 전치사구 “ek pisteos”가 어떤 단어와 관련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장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로 번역할 것인지 아니면 “의인은 믿음

58) L.Berkhof, 앞의 책, p.83-4.

59) 박영희, 신약석의의 방법과 실제, (서울:총신대학출판부, 1988), p.22-3.

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로 번역할 것인지 결정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ek pisteos는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라는 이유때문에 형용사보다는 동사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따라서 전통적인 번역은 후자의 것을 채택한다. 그러나 로마서의 넓은 문맥에 근거해서 볼 때 ho dikaios는 하나님과 바른관계를 회복한 사람을 가리키며 이 경우에 ek pisteos는 한정사로 얼마든지 dikaios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⁶⁰⁾ 이와 같이 개별적인 구, 절, 심지어는 문장 그 자체의 범위 안에서는 이러한 문법의 잠정적인 모호성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 모호성은 더 넓은 문맥에 의해 해결된다.⁶¹⁾

마태복음 8:7의 “Ego elthon. therapeuso auton”은 서술문일 수도 있고 의문문일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다. 문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본래 헬라어에는 구두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프랑스(R.T.France)는 서술문으로 해석해서는 어색하다고 한다. 의문문으로 보아야 Ego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며 전체 문맥이 매끄러워진다고 한다.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달라는 청을 받는다. 프랑스는 이 문장을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사(마15:21-28; 막7:24-30)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방인을 치료하는데 거부감을 가지셨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꼭 그곳에 가서 그 병을 고쳐주어야 하겠느냐?”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⁶²⁾

그러나 NEB를 제외하고는 KJV, NIV, GEB, 한국 개역성경등 거의 모든 번역성이 서술문으로 번역해 놓았다. 헬라어 성경인 UBS³, NA²⁶도 마침표를 찍어서 이 문장이 서술문임을 나타내고 있다. 건드리(R.H.Gundry)도 이 문장을 “유대인인 내가 유대인의 의식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인인 네 집에 들어가서 종의 병을 고쳐주어야 하겠느냐?”는 의미의 의문문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한다. “Ego”라는 강조형의 대명사가 사용됨으로서 예수님 자신의 치료하시는 권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⁶³⁾

이처럼 여기서도 문법적인 지식만을 가지고는 이 문장이 서술문인지 의문인지 조차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7:

60) J.P.Louw, 앞의 책, p. 105.

61) 앞의 책, p. 105.

62) R.T.France, “Exegesis in Practice: Two Examples”, in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ed. by I.H.Marshall, (Grand Rapids; Eerdmans, 1977), p. 257.

63) R.H.Gundry, *Matthew: A Commentary on his Literary and Theological Art*, (Grand Rapids; Eerdmans, 1983), p. 143.

2—10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이 문장이 서술문임을 알 수 있다. 7:6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듣고는 지체 없이 백부장의 집으로 “함께 가신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찬치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인 “ti emai kai soi, gunai”(요2:4)를 문법에 따라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매우 당황스러운 번역이 된다. 예를 들어서 ASB에는 “Woman, what do I have to do with you?”로 번역해 놓았다. 이 번역은 예수님이 어머니가 하신 말씀뿐 아니라 어머니 자신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셨다는 인상을 준다. 한글 개역성경에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로 번역되어서 다소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는 넓은 문맥을 고려할 때, 또 이 문장에 셈어의 관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⁶⁴⁾ 예수님은 여기서 두개의 관용어를 사용하신다. “ti emai kai soi”이고 다른 하나는 “oupo hekei he hora mmou”이다. 앞에 것은 어떤 말을 들은 사람이 보여주는 대단히 놀란 반응을 나타낸다. 즉 “왜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또는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뜻이다. 즉 예수님은 혼인 찬치인 주인이 아니다. 그런데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그와 의논해야 하는가? 두번째 것은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잠시동안 그 일에 주의를 기울이셨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한다. 또 예수님은 즉시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러한 전체 문맥을 살펴볼 때 예수님과 어머니는 모두 자애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i mai kai soi”는 결코 무정한 말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why do you involve me?”로 번역한 NIV의 번역이 무난하다. 로우는 이러한 논증 끝에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Mother, you really want to involve me, don't you!”⁶⁵⁾

본문을 해석하는데 문법의 한계와 모호함이 나타나며 따라서 문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시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다른 요한일서의 “pas ho gegennemos ek tou thou thmartian ou poiei……kai ou dunatai hamartanein……”(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을……3:9)을 해석하는데 시상이 결정적인 역할

64) J.P.Louw, 알의 책, p. 12.

65) J.P.Louw, 알의 책, p. 13.

을 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시상이 현재라는 점 때문에 이 문장은 신자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반복적이며 습관적으로는 죄를 짓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문맥을 살펴볼 때 이러한 해석은 문제가 없지 않다. 5:16에서 요한은 신자들의 죄를 말하는데서 현재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3:9에서 신자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맥을 무시하고 사용된 동사가 현재 사상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 문장을 분석한다면 설득력있는 해석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마샬(I.H.Marshall)도 앞에서 제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문법의 미묘한 차이에 근거해서 본문을 해석하는 촛점을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⁶⁶⁾ 이 본문 역시 문장에 대한 문법적 지식만으로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 문법과 함께 전체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같이 시상이 지난 일반적인 문법적 특성을 절대화해서 모든 경우, 모든 문맥에 적용할 수는 없다. 특별히 부정과거와 관련해서 스태(F.Stagg)은 많은 문법학자들과 주석가들이 부정과거를 무조건 “유일회적”이거나 “완결된” 동작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을 비판한다.⁶⁷⁾ 부정과거 시재로 사용되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유일회적 행위도 아니요, 일시적인 점적인 동작을 뜻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12의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hupekousate)…”에서 “복종하여”는 부정과거 동사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반복적이며 계속적인 동작을 가리친다. 마태6:6의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eiselthe)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에서 “골방에 들어가”는 부정과거 동사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것은 반복적인 동작을 뜻한다.⁶⁸⁾ 이런 예는 문법적 원리로서 시상은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본문을 해석하는데 시상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로마서 5:12의 경우가 그 하나이다. 그것은 이 본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에 사용된 동사 “죄를—지었으므로”(hemarton)가 부정과거 동사이므로 이것에 근거해서 이 본문을 의미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일어난 “유

66) I.H.Marshall, *The Epistles of John*, p. 180.

67) D.A.Carson, 알의 책, p. 69.

68) D.A.Carson, 알의 책, p. 70-1, 요일2:24; 고후 11:24 계20:4; 히11:13; 앱2:1-2; 요인5:21; 앱2:7.

일회적 행동”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즉 아담이 최초로 범죄했을 때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단번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hemarton”이라는 동사 그 자체에 대한 문법적 분석 만으로는 결코 끌어낼 수 없는 결론이다. 오직 성경 전체의 문맥과 가르침을 적용할 때 얻을 수 있을 결론이다.⁶⁹⁾ 여기서 부정과 거동사에 대한 문법적 이해는 이러한 신학적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뿐이다. 이것은 현재 시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시상도 문맥에 따라서 단순히 현재의 동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동작, 과거의 동작, 미래의 동작, 반복된 동작 등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된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 시상의 의미도 부분적으로는 독립된 사상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한 문맥 안에서 그 시상이 향유하는 독립된 시상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한 문맥 안에서 그 시상이 향유하는 일련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은 한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서 갖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심지어 어떤 문장은 문법 규칙과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의미를 전달하거나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사람의 언어, 관습, 또는 넓은 문맥 안에서 그 의미가 충분히 해석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4의 “apo ho on kai ho en kai ho erxomenos”(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문법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표현이다. 전치사 “apo” 뒤에는 속격이 와야 한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주격 관사와 분사가 왔기 때문이다. 문법 규칙에서 볼 때 이 문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변화사(indeclinable)로 간주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정상적인 것이요, 따라서 문법적으로도 완전하다.⁷⁰⁾ 이것은 문법 규칙 보다도 전체 문맥이나 언어 관습이 우선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하나님의 예이다.⁷¹⁾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예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해 준다.

69) 앞의 책, p. 71.

70) 앞의 책, p. 73.

71) D.A.Black, 앞의 책, p. 13-4.

72) A.C.Thiselton, 앞의 책, p. 77, 언어의 논리적 기능, 또는 의미는 전적으로 문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문법 그 이상으로 언어가 사용되는 자리나 언어 외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this is poison”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서술문이다. 동사인 “is”가 문법적으로 3인칭 단수 현재 적설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절박한 명령형의 문장일 수 있는 것이다. “Quick! Fetch a doctor” 또는 “Look out! Don’t drink this”와 같은 경고문일 수 있다. 이것은 문장의 실제 의미가 단순히 문법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본문을 해석하는데 문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문법자체가 아닌 부분적인 한계때문에 충분한 단서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둘째, 그런 경우에 문맥은 문법의 모호함을 밝혀주는 빛을 비춰준다. 그러므로 문장을 분석하는데 문법적 원리만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그 와 함께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문법 원리 분석은 전체 문맥의 그 논리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한 문장에 대한 문법 분석은 전체 문맥의 태두리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법적 원리가 문맥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법적 분석과 문맥에 대한 분석이 상호 보완의 관계 속에 있음을 말해준다.

세째, 또한 위의 예들은 단어만이 아니라 문장들의 의미도 더 넓은 문맥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문장도 독립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전체 문맥 안에서 일정한 논증의 흐름을 형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문맥을 살펴지 않고 문장을 따로 떼어내서 그 자체만을 분석할 때 문법 원리를 아무리 정확하게 알고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문장의 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결 론

지금까지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법이 지난 중요성과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1. 단어는 고유한 의미의 영역을 있지만 독립된 상태가 아니라 일정한 문맥 안에서 사용될 때,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단어의 의미는 문단이나 문장 안에서 밝혀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문법 연구는 독립된 개개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 단위 안에서 서로 관계를 가진 단어의 의미에 관심을 가진다.

2. 종래에 사용되어 오던 어원 연구는 단어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며, 단어의 형태가 의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어원을 통해서 그 의미를 규명해 내려한 결과 일정한 문맥에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규명해 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문맥을 중요시 하는 동시대적인 연구방법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 신약 성경이 헬라어라는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고, 헬라어가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문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법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문법을 모르고서는 헬라어 문장의 구문조차도 파악할 수 없다. 문법을 이해하고 난 뒤에야 비로서 문장의 구문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바탕 위에서 본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4. 헬라어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할 때 번역 성경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문법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침된 의미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주석자나 설교자는 본문을 해석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공부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⁷³⁾

5. 문법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법 규칙이나 원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문맥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법이 지닌 부분적인 한계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 문맥은 문법의 모호함을 밝혀서 분명하게 해준다. 심지어는 전혀 문법 규칙과는 맞지 않는 본문의 경우에도 문맥이 본문 해석의 토대를 마련해준다. 그러므로 언제나 본문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 문법의 원리와 함께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6. 단어만이 아니라 문장도 더 넓은 문맥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장도 독립된 개체로서가 아니라 전체 문맥 안에서 일정한 논증을 형성하는 한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개개의 문장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일정한 의미를 가진 단락을 형성한다. 이런 점에서 문장도 사상을 전해주는 최소의 단위로 볼 수 있다.

7. 단락을 가장 실제적인 하나의 개념을 전달해주는 최소의 주제단위로 생각하되 본문 분석은 문장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입각해서 본문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강화분석(discourse analysis)이다. 강화란 일정하게 짜여진 하나의 사상단위를 가리킨다. 이 단위 안에서는 분석될 문장들의 가장 작은 집합이 하나의 단락(paragraph)을 이루며 이 단락들 사이의 관계들이 가장 작은 집합이 하나의 단락(paragraph)을 이루며 이 단락들 사이의 관계들이 강화의 전체 논증에 통일성을 부여해준다. 따라서 강화분석은 저자의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이 단어나 문장이 아니라 단락, 즉 가장 실제적으로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는 주제의 단위가 단락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성경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⁷³⁾ E.A.Nida, J.P.Louw 등 현대 언어학을 신약성경언어 연구에 응용한 여러 학자들이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E.A.Nida와 같은 학자는 현대 성경번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한가지 예로 Nida의 번

73) J.P.Louw, 앞의 책, p. 98.

74) D.A.Carson, 앞의 책, p. 66.

역 이론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인 "GOOD NEWS BIBLE"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보급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 신학계에서는 이들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황창기 박사가 "최근 성경해석학의 동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 고작이다. 오히려 전 고려대 동양철학 교수였던 김용옥씨가 Niad의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을 "민족지성"지에 번역, 소개하고 있다. 이제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들의 학문적 작업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특히 신약성경의 해석과 관련해서 헬라어를 하나의 "언어"로서 이해하고 현대 언어학의 성과를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J.Barr, E.A.Nida, J.P.Louw, M.Silva 등의 학자들이 신학계에 활기시킨 중요한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D.A.Carson의 뼈 아픈 충고를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⁷⁴⁾

74)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헬라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B Ramm은 "성경 주석에서 언어학적 방법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은 모든 주석이 전정 유능하고 신실성 있는 주석이 되고자 할진대 본래의 원어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교리는 원어를 해석함으로써만 책임있고 유능한 방법으로 확립될 수 있다. 이것이 지극히 건전한 학문의 원리다. 플라톤 철학에 권위자인 양 하는 철학자라면 희랍어 문장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또 칸트철학의 권위자라면 독일어는 능히 읽을 수 있지 않으면 않된다. 자기가 살고 있는 현대의 언어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자는 항상 자기자신과 원문사이에 언어의 베일을 가지고 해석하게 된다. 그런데 그는 이 베일이 얼마나 얇은지 두꺼운지를 모두가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 참조, 그의 앞의 책, p. 147-8; 또한 루터도 말하기를 "어떤 설교자가 원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없이 자기가 쌓은 덕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는 이 불가결의 요소인 원어의 지식이 없는 만큼 이단에 대항해서 성경을 주석하거나 성경의 교훈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앞의 책 p. 79에서 재인용. 그뿐 아니라 H.H.Rowley도 "...물론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해석해 주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어와 희랍어에 대한 다소의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이 불합리한 일은 아니다. 우리는 희랍의 비극 해석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막상 희랍어를 읽을 줄도 모르는 사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중국어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으면서도 공자의 고전을 강해한다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혼히 성경 해석자도 자기가 다루고 있는 성경 원본에 인체 접근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The Relevance of Biblical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I*, January, 1947, p. 10-11. 앞의 책, p. 34에서 재인용.

"단어연구가 석의의 오류(exegetical fallacies)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근원지가 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많은 설교자들과 성경교사들이 헬라어를 겨우 성구사전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그보다 약간 더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헬라어를 전혀 언어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하는 중에 알게 된 것—종종 문맥과는 분리된, 사전에서 얻은 많은 정보들—을 과시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헬라어를 충분하게 배우는 것이요, 적어도 초보적인 언어학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⁷⁵⁾

참고도서

- The Greek New Testament* 3, (edd. K.Aland, M.Black, C.M.Martini, B Metzger, A.Wekgren), London, N.Y. ; United Bible Societies, 1975.
- Bachmann, H., Slaby, W.A., edd., *Computer-Konkordenz Zum Novum Testamentum Graece*, Beroim, De Gruyter, 1980.
- Bauer, w., *Greek-English Lexicon*,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1969.
- Blass, F., Debrunner, A.,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rans., by R.Funk,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Barr, J.,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London ; SCM Press, 1961
- Berkhof, L., *성경해석학*, 윤종호역, 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1985.
- Black, D.A.,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8.
- Carson, D.A., *Exegetical Fallacies*,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4.
- Fee, G.D.,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7.
- _____, *New Testament Exegesis*,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83.
- France, R.T., "Exegesis in Practice: Two Examples", in ed., by I.H Marshall,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Grand Rapids ; Eerdmans, 1977.
- Gundry, R.H., *Matthew : A Commentary on His Literary and*

- Theological Art*, Grand Rapids, Eerdmans, 1983.
- Hayes, J.H., Holladay, C.R., *Biblical Exegesis*, London, SCM Press, 1983
- Kaiser, W.C., *Toward An Exege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 Louw, J.P., *Semantics of New Testament Greek*,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1982.
- Marshall, I.H., *The Epistles of John*(NICNT), Grand Rapids ; Eerdmans 1978.
- _____, e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Grand Rapids ; Eerdmans 1977.
- Palmar, F.R., 의미론, 현대언어학연구회역, 서울 ; 한신문화사, 1984.
- Ramm, B., 성경해석학, 권혁봉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74.
- Sterrett, T.N., 성경해석의 원리, 성서유니온, 1978.
- Zerwick, M., *Biblical Greek*, trans., from Latin by J.Smith, Rome ; Scriptia Pontifici Instituti Biblia, 1963.
- 고재수, 성령으로의 세례와 신자의 체험, 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 박윤선, 요한복음주석, 하권, 서울 : 영음사, 1985.
- 박종철, 구속사적 성경해석,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 박형용, 문법적-역사적 해석방법의 우월성, 성경과 신학, 제2집.
- 이승미, 계시내용의 목표와 성경해석, 고려신학보 제16집, 1988.
- 황창기, 최근 성경해석학의 동향, 이근삼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부산 : 고신 대출판부, 1984.